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

- 우리는 감각기관과 마음으로 경험한 세계를 超越해야만 이 세계에 迷惑되지 않고 형형색색의 세계에 끌려 다니는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.

이 세상에 왔다면 이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.
이 삶을 끝까지 살아도 자기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고,
이 세상을 위해 나 자신을 바꾸어서도 안 된다.
하지만 이 세상을 초월할 수는 있다.